영어어문교육 *제22권* 2호 2016년 여름

스크립트 이론 기반 초등 영어 문화 대화문 개발 및 적용*

김 은 희**
(운천초등학교)
김 경 한***
(한국교원대학교)

Kim, Eun-Hee & Kim, Kyong-Hahn (2016).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nglish cultural dialogs for elementary students based on the script theory.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2*(2), 87-110.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English cultural dialogs for elementary students based on the script theory. The study selected 102 students as participants from four different fifth grade classes in G Elementary School. The experimental group was given the cultural dialogs developed based on the script theory, whereas the control group was given the dialogs from the current textbook. An experiment was conducted over 12 weeks for the two group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is experiment, pre- and post-English Achievement test and pre- and post-questionnaires on intercultural sensitivity were conducted to see if there is any change in English competence and in intercultural sensitivity between the two group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 English cultural dialogs are more efficient in improving English competence. Furthermore, the English cultural dialogs can be a good instrument to make the integration of language and culture learning.

[English dialogs/cultural dialogs/script, 영어대화문/문화대화문/스크립트]

I. 연구의 필요성

Moran(2001)은 "Language is a window to culture. Language is a cultural product in and of itself."라고 언급 하였다(p.35). 그는 언어란 그 언어가 속한 사회와 문화에 접목되어 존재하는 일종의 문화적 산물로서 그 사회의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 교신저자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정서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그 언어는 완전하게 습득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또, 진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외국어 교육의 목표가 외국어의 문법 규칙이나 어휘 습득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얻는데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그 언어가 속한 나라의 문화와 사상도 학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Moran, 2001). 이러한 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2007,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주는 것과 외국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세계인으로서 자질과 소양을 길러 함양하는 것을 영어과의 양대 총괄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교육부, 2007, 2011).

그러나 김경한(2007)은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효율적인 언어 습득을 위해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의 통합을 추구하였으나 언어·문화 통합교육의 본령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언어·문화 통합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현장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단편적인 정보 위주의 산발적인 문화 내용의 제시, 피상적인 지식 학습 차원의 문화 지도,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 및 평가 방법의 부재, 체계적인 교사연수의 부족 등은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의 효율적인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특히 현행 영어 교과서를 살펴보면 문화와 언어기능의 통합 교육을 위한 시스템 부족을 여실히 볼 수 있다고 하였다(김경한, 2007).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 중 하나는 문화지도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각 출판사에서 제시한 교과서(5학년 7종 교과서 중 6종, 6학년 6종 교과서 중 6종)는 대부분 영미권 문화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문화를 소개한 영역(문화 코너)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문화 내용과 소재는 단순한 정보와 단편적인 사실들이 나열식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내용면에서 듣기 대화문이나 읽기 지문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실제 교실 수업에서 문화 지도는 언어기능과의 통합 지도보다는 단편적 정보 제시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현행교과서에서 문화 내용을 제시하는 주된 방법은 주로 사진이나 그림 등 '설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활동'이 전무하고, '설명'만 나열되어 있어 학생들은 단순히 그림이나 사진을 보거나, CD-ROM title에 의해 제공된 우리말 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다. 즉 교과서에서 배우는 의사소통 상황이나 언어 기능과는 전혀 관계없이 문화내용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과서의 실태에 대하여 김혜련(2003)은 교과서에 문화 학습과 관련된 활동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물론, 교사용 지도서에도 영미 문화에 대한 설명만 나와 있을 뿐 단원의 내용과 연결하여 문화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도 방법이 나와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김혜련, 2003. P.81). 또, 김경한(2007)은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영어과 교재는 언어 중심의 교재였음을 지적하며, 특히 언어를 중심으로 문화를 통합하려는 시도는 모두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문화교육은 교육과정에만 거창하게 강조되어있을 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교재에도, 교수학습과정에도, 평가에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김경한, 2008). 영어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이상을 실현하는 도구이자,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교수활동과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효과적으로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이재근, 2002). 이를 고려할 때, 문화와 언어기능의 통합적 지도를 위한 영어과 교재의 변화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언어·문화 통합 지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스크립트 이론(script theory)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영어 문화 대화문을 개발하고 그것을 수업에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크립트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영어 문화 대화문 수업 적용이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스크립트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영어 문화 대화문 적용 수업이 학생들의 문화 간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스크립트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영어 문화 대화문 수업 적용에 있어서 학생들의 영어 능력과 문화 간 감수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II. 문헌 연구

1. 스크립트의 개념

스크립트(script)는 스키마(schema)의 한 형태로서 1970년 후반부터 인지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Schank와 Abelson(1977)에 의하여 정립되었다. Schank와 Abelson(1977)에 의하면, 스크립트란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사건들의 정형화된 절차, 혹은 반복적 사건들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가기'나 '병원에 가기'와 같은 일상적 사건들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스크립트라고 할 수 있다(박태진, 1985).

Schank와 Abelson(1977)에 따르면,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할 때 모든 일상사를 항상 세세하게 말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담화에 주어지지 않은 정보를 스스로 유추하여 채워가거나(filling in the slots), 오류를 수정해 올바로 인지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때 정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식의 틀이 스크립트이다.

스크립트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일상적인 사건의 부분들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의사소통이 되도록 돕는 지식이다(Mandler, 1984).

Bower, Black 과 Turner(1979)는 사람들이 스크립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기억해내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들은 10 개의 일상적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실험자들에게 제시하고 각 절차에 해당하는 장면을 구분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실험자들은 규정된 절차를 정확히 기억하고 각 장면을 구분해 내었다. 이들의 실험은 인간이 스크립트라는 절차적 지식을 장기기억 속에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일상적인 일들을 처리하고 의사소통 하는데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Fayol & Abdi, 1998).

한편, Meng(2008)은 이러한 절차적 지식은 각 사회마다 다르게 규정되는데, 이는 스크립트가 특정한 문화의 가치관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문화 간에 서로 다른 스크립트가 존재하게 되고, 그러한 스크립트 차이는 문화 충격(culture shock), 즉 의사소통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Meng, 2008).

문화 간에 스크립트가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크립트의 차이는 의사소통의 단절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영어교과서의 대화문은 여전히 사실이나 정보를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영미 문화권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나 문화 스크립트가 반영된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고, 부자연스럽거나 작위적인 내용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교육과정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우리나라의 경우 단원의 내용이나 언어기능과는 별개로 문화내용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지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김혜련, 2003). 이러한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스크립트 문화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영어 대화문은 현행 교육과정의 체제 속에서 문화와 언어가 자연스럽게 통합 된 형태로 지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문화교육이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의 나열에서 그치고 있고, 문화지도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영미 문화권의 행동 양식 및 문화 스크립트가 반영된 영어 문화 대화문은 언어·문화 통합교육의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스크립트 기반 언어·문화 통합교육

한편, 성공적인 언어 학습을 위한 언어지도와 문화지도의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문화의 개념을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Brown(2007)은 문화란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며, 어떤 집단의 사람들을 특징지을 수 있는 생각이나 사고들(ideas), 관습(customs), 기능이나 기술(skills), 도구들(tools)로 정의 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Brown, 2007).

또, Bierstedet(1970)가 제시한 문화 유형을 김경한(2007)은 세 가지 문화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건물, 유적지 등의 사물(things)은 사회 구성원들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물질적 항목으로서 물질문화를 구성한다. 둘째, 규범(norms)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문화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구성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이념(ideas)은 정신문화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눈으로 볼 수 없으며, 잠재의식적이다(김경한, 2007).

Brown(2007)은 문화는 뿌리 깊은 행동 양식 및 인식 양상의 집합으로서 제2언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언어는 문화의 일부분이고, 또한 문화는 언어의 일부분이며, 이 둘은 밀접하게 얽혀있어 이 둘을 떼어낼 수는 없다고 하였다. 즉 제2의 언어 습득은 제2의 문화 습득이라고 하였다. 강용구와 김종선(2002)은 언어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속에서 생겨나고 발전하며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는 곧 그 나라나 사회를 구성하는 문화의 일부분이라고도 하였다. 이는 언어교육에서의 문화지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말해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일과와 관련된 시간적, 공간적, 인과적으로 연결된 친숙하고 일상화된 사건이나 경험의 총 집합체인 스크립트는 한 문화권의 행동문화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문화와 언어의 통합교육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박옥희(2007, pp. 31-32)는 스크립트 이론을 기반으로 한 영어 문화 대화문을 초등학교에 적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첫째, 스크립트 이론 기반 영어 문화 대화문은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 둘째, 스크립트 이론 기반 영어 문화 대화문은 초등학교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는 데 효과적이다. 셋째, 스크립트 이론 기반 영어 문화 대화문은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는 언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문화 간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 G초등학교 5학년 10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G초등학교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대상학교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중 조부모 양육가정, 편부, 편모의 양육 환경에 놓인 학생들의 비율이 40% 가까이로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 가정에 해당되어 학습 면에서 가정에서 조력자가 없는 편이다. 영어 학습 면에서

사교육의 기회를 갖는 학생의 비율은 학급에서 20% 정도이며, 주로 학교 앞 보습학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실정이다.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경험한 학생은 학급에서 2명 정도로 비율이 극히 낮은 편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직접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하여 낮다. 전체적으로 G초등학교는 영어학습의 학교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학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초등학교 국가수준영어성취도 평가 문항을 활용하여 5학년 4개 학급에 대하여 사전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후 4개 학급의 집단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였다. 4개 학급을 선정한 이유는 한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미만으로 표본 크기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취한 조치로서 본 연구를 위한 표본 크기를 가능한 최대한으로 확보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각 학급의 동질성을 일원분산분석을 통하여 먼저 확인한 뒤, 동질성이 확인된 4개의 학급을 두 그룹씩 통합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확보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개의 학급의 영어성취도 평가 평균은 75~77점대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은 0.84로 유의수준(sig)=0.84(p>0.05)이므로 네 개의 집단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대상은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된 네 개의 집단을 임으로 두 그룹씩 통합하여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집단 동질성 검증

집단	학급	N	평균(M)	표준편차(SD)	F	유의확률(P)
비교 집단	A	26	76.10	21.35	.058	.84
	B	27	77.82	18.20		
실험 집단	C	25	75.66	20.33		
	D	24	76.62	19.76		

2. 연구 기간 및 절차

본 연구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다음 과정을 통해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 계획 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문화와 언어 교육, 스키마 이론(schema theory), 스크립트 이론(script theory) 등 관련 문헌 및 선행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연구 주제의 이론적 바탕을 고찰하였다. 둘째,

연구대상 선정 단계에서는 사전 검사지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동질 집단으로 확인된 5학년 4학급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검사도구 선정 및 검토 단계에서는 연구를 위한 검사 도구를 선정하거나 구안하였다. 넷째, 실험수업 단계에서는 먼저 스크립트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영어 문화 대화문을 선정 및 개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주당 1회, 총 12차시의 실험수업을 12주(10월~12월) 동안 시행하였다. 다섯째, 실험결과 평가 및 분석 단계에서는 스크립트 기반 영어대화문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실험 수업 후 학생들의 영어성취도 평가와 문화 감수성 검사, 학생 인터뷰와 저널쓰기를 통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논문 작성 단계에서는 실험수업 결과를 바탕으로 스크립트 기반 영어 대화문의 수업 효과성과 실제 교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3. 연구 설계 및 도구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5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실험반과 비교반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 12주 동안 실험 수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실험수업을 시작하기 전 9월에 영어성취도 사전 평가(2011년)와 문화 간 감수성 검사를 하였다. 영어성취도 사전 평가는 연구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영어성취도 사후 평가 결과와의 비교 분석 자료로서 활용되었다. 실험 수업은 10월~12월에 걸쳐 12주 동안 실시되었다. 이후 12월에는 실험 수업 전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문화 간 감수성 지수 검사지와 2012년 초등학교 국가수준영어성취도 평가지를 활용하여 사후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저널쓰기와 학생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영어 문화 대화문의 수업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양적인 연구를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양적인 자료를 보완하는 관점에서 학생 인터뷰, 관찰, 저널과 같은 질적 자료도 활용하였다.

2) 연구도구

(1) 사전 사후 영어성취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인지 영역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국가수준 영어성취도 평가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영어성취도를 사전 사후 평가하였다. 본 평가지의 경우 4~6학년에서 배운 영어 표현을 바탕으로 영어 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5학년에 활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전 평가는 2011년에 시행된 국가수준 영어성취도 평가지를, 사후 평가를 위해서는 2012년에 시행된 평가지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사전 사후 영어성취도 평가 문항

영어성취도 평가	문항 정보			총 문항 수
	듣기문항	선택형문항	서답형문항	
사전 평가	17	13	4	34
사후 평가	17	13	4	34

(2) 문화 간 감수성 검사지(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Chen & Starosta(2000)이 개발한 문화 간 감수성 검사지를 활용하여 문화 간 감수성을 측정하였다.

(3) 학생 저널, 인터뷰, 관찰

실험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정의적 반응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저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 수업에 대한 느낌, 수업을 통하여 얻은 점, 좋은 점, 혹은 바람 등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실험수업에 대한 정의적 태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인터뷰의 경우 12주간의 영어 문화 대화문을 바탕으로 한 실험수업이 끝난 후 이루어진 사후 인터뷰로서 12월 마지막 주에 실시되었다. 인터뷰는 실험 수업에 대한 태도 및 영어에 대한 태도 변화, 수업에 참여하면서 얻은 점이나 느낀 점 등을 알아보고자 설계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연구 대상인 학생들의 실험 수업 과정을 12주에 걸쳐 관찰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 전시학습을 기억해내는 모습, 수업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관찰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4. 자료의 처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먼저 다음과 같은 통계적 절차에 따라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학생들의 인지적 영역 평가인 영어성취도 평가와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한 정의적 영역의 평가인 문화 간 감수성 지수 검사는 SPSS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독립변인 t-검정을 시행한 후 분석하였다. 둘째, 인지영역인 영어 성취도와 문화간 감수성 지수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살펴봄으로써 두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질적 자료 중 인터뷰 자료는 학생과의 인터뷰 결과를 녹음한 후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위하여 문자로의 번역 과정을 거쳤다. 그 후 번역된 자료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항목화하였다. 학생 저널과 관찰 자료도 코딩 절차를 거쳐 공통 주제를 항목화하였으며 위의 세 가지 자료의 결과를 종합하여 본 실험 결과의 해석과 영어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Ⅳ. 연구 내용

1. 스크립트 이론 기반 영어 문화 대화문 적용 수업의 목표 설정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영어 교육과정의 목표와 김혜련(2003)의 초등영어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문화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식당에서 주문하기'와 '추수감사절' 2가지의 스크립트 이론 기반의 영어 문화 대화문을 학습함으로써 ① 영미문화권 식당에서의 행동양식과 절차적 지식 습득, ②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행동 스크립트 습득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였다. 둘째, '식당에서 주문하기'와 '추수감사절'의 구체적인 행동문화를 살펴봄으로써 영미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자 하였다. 셋째, 목표문화권의 행동 양식과 절차적 지식을 자국문화와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영미권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국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2. 스크립트 이론 기반 교수·학습모형

본 연구의 실험 수업을 위하여 Moran(2001)의 문화지도 4단계를 고려하여 제작한 초등학교 문화주제 중심 수업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스크립트 문화 이론 기반 교수학습모형은 참여, 기술, 해석, 반응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참여(Participation) 단계는 수업 주제와 관련된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수업의 주제를 파악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수업 주제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

둘째, 기술(Description) 단계에서는 문화적 정보가 내재된 영어대화문을 듣거나 읽는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수업 주제와 접한다. 그 후 영어 대화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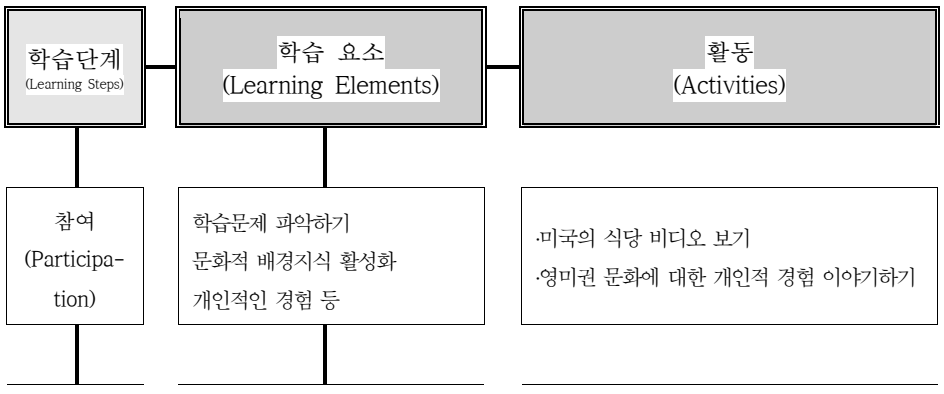
의 내용을 육하원칙(5Ws1H Principles)을 중심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수업의 내용을 파악한다. 이때, 영어 대화문 내용을 더욱 잘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을 듣기 내용에 따라 순서대로 놓거나(listing) 이름표를 붙이는 활동(labeling) 등을 한다. 기술 단계에서는 영어 대화문의 문화 내용과 핵심 대화 패턴을 파악하고 연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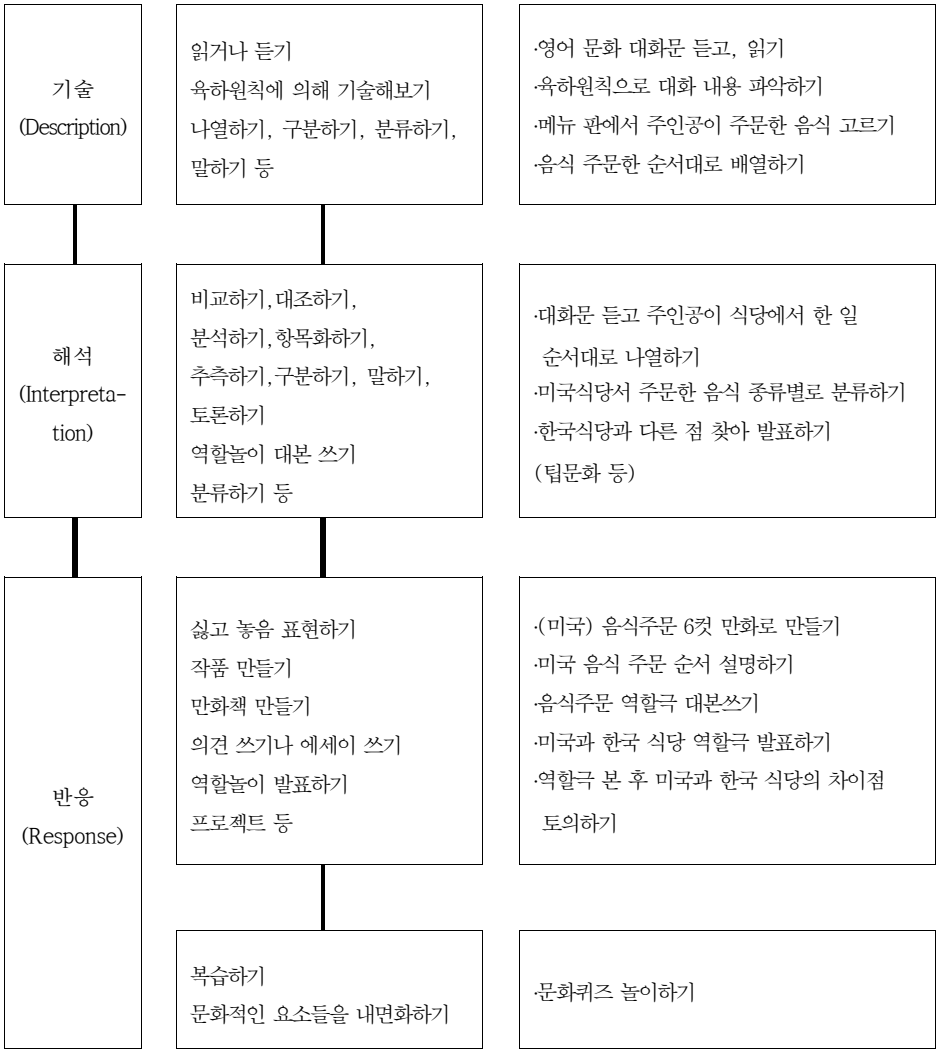
셋째, 해석(Interpretation) 단계에서는 다른 나라의 문화와 모국 문화를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활동과 함께 핵심 언어 패턴에 대한 연습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At the Restaurant)' 영어 대화문을 들은 후 학생들은 소집단 토의를 통하여 우리나라 식당과 미국 식당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교하고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미국에서 음식 주문하는 순서를 그림카드를 순서대로 나열한 후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찾기 활동을 진행한다. 해석 단계에서는 언어 기능을 연습할 뿐만 아니라 모국 문화와 목표 문화를 비교, 대조하는 활동을 통해 모국 문화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다른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는 역량을 기른다.

넷째, 반응(Response) 단계에서는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의 통합적 활동으로 학생들은 개인의 느낌과 의견을 바탕으로 짧은 글쓰기, 역할놀이 대본 꾸미기 및 연습하기, 역할놀이 시연하기, 만화 만들기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내면화하고, 체계적으로 장기기억에 남길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구체적으로 간단한 문화퀴즈를 실시하고 핵심 대화 패턴을 상기하도록 한다. 특히, 수업 전과 수업 후의 자신의 생각과 의견의 변화도 성찰하게 함으로써 자신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목표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그림 1

스크립트 이론 기반 교수·학습모형(Moran의 문화수업의 4단계)





3. 스크립트 이론 기반 영어 문화 대화문

본 연구를 위하여 정혜민(2013)이 개발한 4개의 문화 대화문 중 '식당에서 식사하기'와 '추수감사절'이라는 2가지 상황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한 문화 대화문 <표 3>과 <표 4>를 실험 집단에 12주간 투입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표 3

스크립트 이론 기반 영어 대화문 목록(1)

주	상황(situation)	장면(scene)
1주	식당에서 식사하기 문화 대화문 (At a restaurant)	Scene 1: 식당에 들어서기(Entry)
2주		Scene 2: 음식 주문하기(Order)
3주		Scene 3: 음식 먹기(Eat)
4주		Scene 4: 후식 먹기(Get some dessert)
5주		Scene 5: 음식 값 지불하기(Pay the bill)
6주		Project: 역할놀이 대본 준비 및 연습
7주		Project: 역할놀이 시연 및 반성
문화 지도 요소	1)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손님이 직접 테이블에 가서 앉는 한국과는 달리 영미권(미국)의 경우 식당에 들어서면 손님은 웨이터의 안내(wait to be sited)가 있을 때까지 식당입구에서 대기한 후 웨이터의 안내에 따라 테이블에 앉음. 2) 영미권(미국) 식당의 경우 음식을 주문하는 순서(음료→주메뉴→후식)가 대체로 정해져 있음. 음료의 경우 음료 종류와 크기(size)를 선택하고, 후식의 경우 대체로 작은 케익 등을 먹게 됨. 세 단계의 주문은 매번 별도로 이루어지고, 주문 때마다 웨이터가 테이블로 다가와 주문을 받음. 3) 웨이터는 손님의 테이블로 다가와 만족도를 묻는(Is everything ok?) 등 손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지 자주 점검하고 만족도를 극대화 하고자 노력함. 손님은 음식 값 지불 단계에서 만족도에 따라 음식 값의 약 10~20% 내에서 봉사료(tip)을 지불함. 팁은 웨이터에게 직접 건네기 보다는 테이블 위에 놓아두면 됨.	

<표 4>는 추수감사절 문화 대화문으로 12월에 실험집단에 적용되었다.

표 4

스크립트 이론 기반 영어 대화문 목록(2)

주	상황(situation)	장면(scene)
8주	추수감사절 문화 대화문 (Thanksgiving Day)	Scene 1: 준비하기(Prepare)
9주		Scene 2: 식사하기(Have a meal)
10주		Scene 3: TV보기(Watch TV)
11주		Scene 4: 쇼핑 가기(Go shopping)
12주		Project: Thanksgiving Day 만화책 만들기

문화 지도 요소	1)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추석 음식(햇곡식, 햇과일 등)을 장만하여 나눠 먹는 추석과 같이 추수감사절에 영미권(미국) 사람들도 가족이나 친척들이 모여 음식을 준비하여 나눠먹음.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요리, 으깬 감자(mashed potato), 호박파이 등을 먹음. 2) 조상을 기리는 추석과는 달리 영미권(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는 주로 TV를 통해 미식축구 게임을 보거나 나라 전역에서 펼쳐지는 퍼레이드 생중계를 보며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냄. 3) 추수감사절 늦은 저녁 즈음에는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를 맞이하여 가족들과 쇼핑을 나가는 경우가 많음.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 마지막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날로서 전통적인 연말 쇼핑시즌의 시작점으로 연내 최대의 쇼핑이 이루어지는 날임.

Ⅴ. 연구 결과 분석 및 논의

1. 영어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표 5
영어성취도 평가 결과 독립표본 t-검정

	집단	사례 수	평균(M)	표준편차(SD)	t	P
실험 전 영어평가	통제집단	53	76.97	19.63	.185	.854
	실험집단	49	76.25	20.08		
실험 후 영어평가	통제집단	53	77.20	19.91	-2.01	.048
	실험집단	49	84.32	15.52		

실험 전 영어성취도 평가 결과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집단은 평균 76.97(SD=19.63), 실험집단은 평균 76.25(SD=20.08)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t=185(p>.05)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실험 후 영어성취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통제집단 평균이 77.20(SD=19.63), 실험집단 평균은 84.32(SD=15.52)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t=-2.01(p>.05)로 실험 후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두 집단의 평균값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스크립트 이론을 기반으로 한 영어 문화 대화문을 적용한 수업이 일반 수업에 비하여 학생들의 영어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문화 간 감수성 지수 검사지 분석 결과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문화 간 감수성을 측정하였다. 검사 결과를 총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문화 간 감수성 지수 검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상호작용 참여(Interaction Engagement)

표 6
상호작용 참여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집단	사례 수	평균 (M)	표준편차 (SD)	t	P
실험 전 영어평가	통제집단	53	24.85	4.33	1.34	.184
	실험집단	49	23.73	4.06		
실험 후 영어평가	통제집단	53	24.68	4.71	-2.19	.031
	실험집단	49	26.41	3.18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집단의 평균은 24.68(SD=4.71), 실험집단의 평균은 26.41(SD=3.18)로 나타났다. 이것은 수치상 실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약간 상승하였으며, t=-2.19(p<.05)로 통계상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 문화 대화문은 학생들이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열린 마음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문화 차이 존중(Respect for Cultural Difference)

<표 7>에 따르면, 통제집단의 평균은 21.36(SD=3.81), 실험집단의 평균은 22.73(SD=2.83)으로 근소한 차이로 실험집단의 평균이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t=-2.06(p<.05)로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크립트 문화 이론 기반의 영어 문화 대화문을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을 통계상으로 보여준다.

표 7
문화 차이 존중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집단	사례 수	평균(M)	표준편차(SD)	t	P
실험 전 영어평가	통제집단	53	21.34	3.36	.879	.382
	실험집단	49	20.76	3.35		
실험 후 영어평가	통제집단	53	21.36	3.81	-2.06	.042
	실험집단	49	22.73	2.83		

3) 상호작용 자신감(Interaction Confidence)

표 8
상호작용 자신감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집단	사례 수	평균(M)	표준편차(SD)	t	P
실험 전 영어평가	통제집단	53	16.13	3.56	.10	.920
	실험집단	49	16.06	3.55		
실험 후 영어평가	통제집단	53	15.91	3.80	-2.01	.047
	실험집단	49	17.45	3.96		

<표 8>의 상호작용 자신감 지수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통제집단의 평균은 15.91(SD=3.80), 실험집단의 평균은 17.45(SD=3.96)로 나타났으며, t=-2.01 (P<.05)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상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자신감이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 다른 문화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한다. 본 연구 결과는 영어 문화 대화문이 영미문화권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나 일의 절차 등 구체적인 스크립트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해줌으로써 자신감을 향상시켜줄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4) 상호작용 향유(Interaction Enjoyment)

<표 9>의 상호작용 향유 지수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통제집단의 평균은 11.11(SD=2.15), 실험집단의 평균은 11.20(SD=2.09)으로 나타났다. 실험결과 통제집단에 비하여 실험집단의 평균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는 t=-.22 (p>.05)로 두 집단 간의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실험 후의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9
상호작용 향유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집단	사례 수	평균(M)	표준편차(SD)	t	P
실험 전 영어평가	통제집단	53	11.15	2.37	1.25	.216
	실험집단	49	10.59	2.14		
실험 후 영어평가	통제집단	53	11.11	2.15	-.22	.829
	실험집단	49	11.20	2.09		

5) 상호작용 관심(Interaction Attentiveness)

표 10
상호작용 관심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집단	사례 수	평균(M)	표준편차(SD)	t	P
실험 전 영어평가	통제집단	53	9.91	1.94	-.076	.94
	실험집단	49	9.94	2.46		
실험 후 영어평가	통제집단	53	10.15	1.70	-.035	.97
	실험집단	49	10.16	1.81		

<표 10>의 상호작용 관심 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통제집단 평균값은 10.15 (SD=1.70), 실험집단의 평균값은 10.16 (SD=1.80)으로 두 집단 모두 실험 전에 비하여 평균값이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t=-.035(p>.05)로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영어성취도와 문화 간 감수성 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언어중심 수업에 문화를 통합하여 지도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문화의 통합 지도에 따른 언어 능력의 향상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어성취도와 문화 간 감수성 지수의 상관관계를 피어슨 상관관계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어성취도와 문화 간 감수성 지수(전체) 간의 상관관계는 r=.56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영어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전반적으로 문화 간 감수성 지수도 높아

영어능력과 문화감수성이 상호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성취도와 문화 간 감수성 지수 하위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영어성취도와 문화 간 감수성의 하위 영역인 '상호작용 참여'의 상관지수는 r=.50으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의 교류나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영어성취도가 높거나, 혹은 역으로 영어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영어성취도와 상호작용 자신감 사이의 상관지수는 r=.48 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문화권과의 교류 및 상호작용에 대한 자신감은 영어성취도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결론적으로 영어성취도는 문화 간 감수성 영역 중 '상호작용 참여'와 '상호작용 자신감'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어 문화 대화문을 활용한 언어와 문화의 통합 지도는 영어성취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영미권 사람들과의 대화와 상호작용에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영어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학생들의 저널, 학생관찰 및 사후 인터뷰 결과 분석

본 연구의 실험 수업 후 학생들이 작성한 저널, 인터뷰 및 학생 관찰로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 세 가지의 내용으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1) 전시학습 상기/ 핵심표현 및 대화내용 기억 재생

(2) 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 실제 상황에서의 영어 사용 자신감

(3) 영미권 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심

첫째, 전시 학습 상기 면에서 실험집단 학생들이 핵심 언어 표현 및 대화 상황을 더 잘 기억해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교집단은 전시 학습 상기시 단편적인 핵심 표현을 중구난방 식으로 기억해내는 반면 실험 집단은 대화 상황을 떠올리며 순차적인 장면의 흐름에 따라 핵심 표현을 기억하고 발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많은 학생들이 "대화 장면의 제목을 듣는 순간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잘 기억해 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스크립트가 정보의 저장과 기억을 용이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의 영어성취도 평가 결과가 유의미한 차이로 향상된 결과를 뒷받침한다.

둘째,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비교집단의 학생들에 비하여 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학생들은 '미국에 갔을 때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팁을 놓을 때 웨이터에게 말을 잘 할 수 있겠다,"음식을 순서대로 주문할 수 있을 것 같다' 등과 같이 실제 언어 사용 상황에 놓였을 경우 목표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겠다고 기술하였다. 이는 영어 문화 대화문이 '상호작용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단편적인 핵심 문장을 배우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핵심 언어 표현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문화적 상황에 대한 정보가 주어짐으로써 언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영어 문화 대화문을 활용한 실험집단의 경우 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월등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구체적인 문화적 차이점을 알게 되어 흥미로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목표언어가 사용되는 문화적 맥락이나 상황이 담긴 영어 문화 대화문이 '문화 차이 존중' 영역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한다는 양적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즉, 영어 문화 대화문은 학생들이 영미권 문화의 차이를 인지하고 그러한 차이를 긍정적인 자세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과 존중의 자세는 결국 실제적인 영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크립트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영어 문화 대화문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영어 문화 대화문의 수업 적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크립트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영어 문화 대화문은 학생들의 영어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개발된 영어 문화 대화문이 학생들의 배경 지식 및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이것은 결국 언어학습 내용을 장기 기억하는데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결과는 영미권 사람들의 행동 절차 및 행동문화와 같은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개발된 영어 문화 대화문은 학생들의 배경 지식 및 스키마를 활성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결국 이는 학습 내용을 장기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스키마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스크립트 이론을 기반으로 한 영어 문화 대화문은 학생들의 문화 간 감수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호작용 참여, 문화적 차이 존중, 상호작용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어 문화 대화문은 다른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다른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의 스크립트를 이해하며, 문화 간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영어성취도와 문화 간 감수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두 변인 간의 상관지수 r=.56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영어 문화 대화문을 12주 동안 적용한 결과 실험집단의 영어성취도와 문화 간 감수성 지수가 동시에 향상된 것으로 보아, 두 변인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영어성취도와 문화 간 감수성은 서로 관련이 있으며, 이 두 가지의 변인은 영어 문화 대화문을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동시에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초등학교 영어교육에서 언어·문화 통합 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자와 영어 교사가 교실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영어 교과서의 영어 대화문은 언어와 문화의 통합을 고려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다. Tran-Hoang-Thu(2010)는 교과서는 문화를 학습하는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교육과정의 영향이 지대한 경우 단원의 핵심 내용에 문화를 통합하기는 쉽지 않다. 한 단원의 중요 학습 내용이 주요 대화문 또는 텍스트를 통해 결정된다면, 이들을 구상할 때부터 문화교육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처럼 언어지도 목표와 문화지도 목표가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언어·문화의 통합지도가 필요한데, 이때 스크립트 기반의 영어 문화 대화문은 언어와 문화의 통합지도를 자연스러우면서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 줄 것이다. 따라서 교재 개발 시 영미 문화권의 스크립트를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문을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언어와 문화의 통합 지도가 교실 안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모형 개발과 구체적인 학습활동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김혜련(2003)은 우리나라의 초등영어 교재와 문화교육에 나타난 문화적 내용은 영미문화에 관한 사진을 제시한 것이 전부라고 지적하였다. 교과서에 문화 학습과 관련된 활동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물론, 교사용 지도서에도 영미 문화에 대한 설명만 나와 있을 뿐 단원의 내용과 연결하여 문화교육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지도 방법이 부족하다. 따라서 실제로 언어목표와 문화목표가 동시에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모형과 구체적인 학습활동이 교사용 지도서 및 교과서에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용구, 김종선. (2002) 영어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지도. *영어어문교육*, *9*(2). 4-5.

교육부. (2007).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외국어(영어)과]*. 서울: 대한교과서.

교육부. (2011). *영어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김경한. (2007) 영문학 기반 문화-교수 학습모형 개발. *영미문학교육*. 11(2)

김경한. (2008). 영어과 문화교육과정 확립 방안. *영어교육*, *7*(2), 17-37.

김혜련. (2003). 초등영어문학교육: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을 위하여. *초등영어교육*, *9*(1), 69-95.

박옥희. (2007). *Cross-cultural script development for promoting communicative competence in English education*. 미출간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충북.

박태진. (1985). Script 지식의 구조. *전남대학교 교육논총*, *11*, 55-78.

이재근. (2002). 영어교과서 개발의 최근 동향. *영어어문교육*, 8(1), 6-7.

정혜민. (2013). *스크립트 개념 기반 초등영어 고학년 문화 대화문 개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충북.

Bower, g., Black, J., & Turner, T. (1979). Scripts in text comprehension and memory. *Cognitive Psychology 11*, 177-220.

Brown, H. D. (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San Francisco: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Press.

Chen, G. M., & Starosta, W. J. (200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ensitivity scale. *Human Communication, 21*, 1-15.

Fayol, M., & Abdi, H. (1998). Influence of script structure on punctuation. *Cahiers de Psychologie Cognitive European Bulletin of Cognitive Psychology, 8,* 265-279.

Mandler, J. M (1984). *Stories, scripts, and scenes: Aspects of schema theory.*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Meng, H. (2008). "Social script theory and cross-cultural communicatio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XVII*(1), 132-138.

Moran, p. (2001). *Language-and-culture. In teaching culture: Perspective in practice*. Boston, MA: Heinle & Heinle.

Schank, R., & Abelson, R. (1977). *Scripts, plans, goals, and understanding: An inquiry into human knowledge structur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Tran-Hoang-Thu. (2010). *Teaching Culture in the EFL/ESL Classroom*. Paper presented at The Los Angeles Regional California 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Fullerton, Alliant International University. San Diego, California.

부 록

스크립트 기반 영어문화 대화문: '식당에서' 영어 문화 대화문(실험집단)

Script: RESTAURANT
Track: Restaurant
Props: Tables, Menu, F-Food, Check, Money
Roles: Waiter1, 2. John's family

Situation Descript	John's family come to the family restaurant for dinner. They enter the restaurant and a waiter guide them to their seat.
Cultural Objectives	가. 영미 문화권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순서를 설명할 수 있다. 나. 영미 문화권 식당과 한국 식당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Communicative Objectives	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나. 상대방에게 음식을 권하고 답할 수 있다. 다.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고 답할 수 있다.

Dialogues

Scene 1	Entering	Waiter: Good evening! Welcome to the "Four Seasons". My name is Brian and I'm going to be your waiter for tonight. Dad: Good evening! Waiter: How many people? Dad: Four Waiter: Can you wait for a second? Dad: Okay. Waiter:(After checking the seat) Please come this way.
Scene 2	Odering	(They sit and their server comes.) Waiter: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Dad: Yes. Can I get some orange juice? Waiter: Sure. Mom: I'm ok. John & Sally: Cherry coke, please. (The waiter takes a note. Later, he comes with the

		beverages they ordered.) Waiter: Are you ready to order? Dad: I'll get some fajitas. John: I want a BBQ burger. Sally: One club sandwiches for me, please. Waiter: What will you have Madam? Mom: Umm…I'd like to have the salmon salad. Thank you.
Cultural Awareness		1)한국인의 경우 식당에 들어갔을 때 손님이 직접 자신이 앉을 자리를 선택하고 곧바로 앉는 경우가 많음. 반면에 미국의 경우 식당에 들어갔을 때 웨이터가 적당한 자리를 찾아서 앉혀줄 때까지 식당 입구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음. 특히 대개의 경우 각자 테이블은 그 테이블을 담당하는 특정 웨이터가 있어서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2) 한국의 경우 음식을 주로 한꺼번에 주문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 음식을 주문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편임. 손님은 대개 음료를 먼저 주문하고, 그 후 본식, 그리고 후식 순서로 주문하는 경향이 있음. 음식을 주문하거나 선택할 때에는 음료나 음식, 부식의 경우 종류나 크기 등을 선택하는 등 손님의 선택의 기회가 많음.

현행교과서 대화문: '세계 음식 축제(YBM)' (비교집단)

지민: Mmm, it smells good.
(뒤에 오는 친구들에게)Hurry up. (축제장으로 간다.)
도일: Wow! Look at the food from all over the world.
세호: It looks great. What will you have?
리사: Well, I'll have some Chinese food. How about you?
도일: I'll have Chinese food, too. Let's go together.
모두: Okay.
중국인: Would you like to try some dimsum?
리사: Yes, I'd love to.
(맛을 본 후)Mmm, it's delicious. Doil, what will you try?
도일: I'll try this noodle.
(기스면을 먹은 후) Mmm, this is nice. I like it.
Let's go and try another food.
모두: Thank you. Bye!
중국인: Good-bye! Enjoy the festival.
(모두 멕시코 음식관으로 이동한다.)

다문화간 감수성 검사지(한국어 판)

다음 설문지의 항목들은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정답이나 오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문항들을 읽고 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 표 해주세요. 문항에 답할 때에는 가능하면 빨리 읽은 후 처음 드는 생각에 √표를 하면 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 가 항 목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잘 모르 겠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나는 나와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제를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생각이 좁거나 편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대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항상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교제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붙임성 있고 사교적으로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가치관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교제할 때 쉽게 당황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교제할 때 자신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다른 문화에 대해서 단정 짓기 전에 생각하고 숙고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종종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해 관대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 매우 사려 깊게 관찰하고 살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들에 대해 되도록 많이 알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들의 미묘한 말과 행동에 민감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우리나라 문화가 다른 나라 문화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나의 문화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말 또는 몸짓으로라도 표현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나와 다른 문화적 차이점에 대해서 흥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상호작용 참여'는 1, 11, 13, 21, 22번, '문화적 차이 존중'은 2, 7, 8, 16, 18, 20번, '상호작용 자신감'은 3, 4, 5, 6, 10번, '상호작용 향유'는 9, 12, 15번, '상호작용 관심'은 14, 17, 19번에 해당함.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Elementary

김은희
운천초등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59
E-mail: pungpung0@hanmail.net

김경한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Email: hnkim@knue.ac.kr

Received in April 15th, 2016
Reviewed in May 26th, 2016
Revised version received in June 7th, 2016